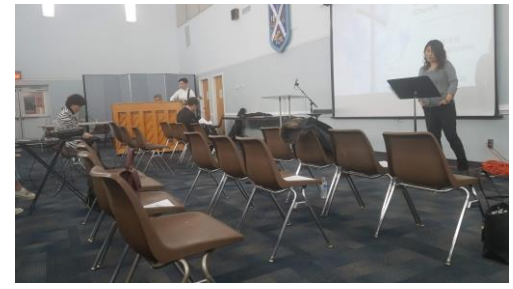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의자 하나가 빠져있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의자를 배치할 때 우리 사모님은 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한번도 빠짐없이 매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런 사랑 함께 받을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 행함

# 3



2020

스물 한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 이달의 행함 킹: 이종일(지붕위 남자)

어느 2월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날, 우리는 예정된 날이었기에 이사를 감행 할수밖에 없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분이 찾아오셨다. 지인으로부터 우리 사정을 전해 듣고 도와 주고 싶어서 오셨단다. 너무 뜻밖이고 감사해서 악수를 나누는 순간 웬일인지 스파크가 일어났다. 그뒤로 나는 그분으로부터 스파크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는 기회도 되었다.

그 분의 손놀림에는 남다른 사랑이 배어있었다. 그래서 2월 그날은 가장 추웠던 기억 보다는 가장 따뜻하게 감사로 남아있다.

처음 만난 그분은 지붕을 고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지붕을 고치면서 자기가 가진 기술로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셨다.

그후로 그분은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 남을 돕는 일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래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도 이런 저런 일을 찾아 내어 많은 일을 해내셨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지붕을 고쳐 주시고, 나무를 베어 주시는 등등...

어느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매한테 전화가 왔다. 아무래도 지붕에서 물이 세는 것 같은데 믿을 만한 분을 소개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분이 평소에 한말이 생각이났다.

“스파크 전도사님! 저를 이용 하이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가 무료로 지붕 고쳐주겠습니데이”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그 자매집에 달려가서 지붕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지붕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텐데, 뜨거운 퇴약빛을 등에 이고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런중에도 달려가는 그분은 꼭 마징가 젯트 같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남을 돕는 행함이 언제쯤이나 몸에 배일까?

오늘은 유난히 추운 2월이 가는 길목이다. 이사 오던날이 생각나서 몽클해진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분은 행함만큼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만큼 행함이 깊어지게 하소서.

-강수잔기자-

성경을  
옆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되는 대로  
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

# 작은 행함을 끊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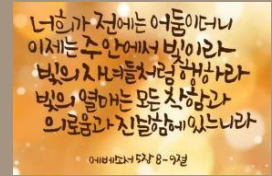
죽복 즐김  
별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친구 라몬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 잘 지내느냐는 내 질문에 돌아온 답이 기가 막히다. 죽복 즐김 하, 그거 기가 막힌 거네.



이가 부러져도  
집사님 이가 이상하다. 모르는 사람과 심하게 부딪혔단다. “치료비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 분 상처 받을까봐 괜찮다고 숨겼어요.”

매맞는 남자  
한인 지인들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신체적 장난을 삼가해 준다. 그러나 미국 친구들은 다르다. 장난치면서 내 몸을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모른다. 이 나이에 매맞는 남자가 되다니

“이거 쓰세요.”  
추운데로 놀러 간다니까 아는 목사님이 핸드 워머를 등백 건네 주신다. 저러시니 사람들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지.



## 예배 시간 전화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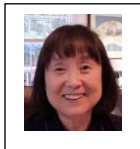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 다른 목사님 같으면 예배 시간에 미리 꺼야지 소리나게 해서 예배 방해했다고 기분 나빠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웬걸. “어서 전화 받으세요.” 조금도 싫은 표정없이 설교를 멈추고 말씀하셨다. 예배 도중 조는 신자에게 목사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글을 읽었다. 한 반응은 ‘얼마나 힘들게 일했으면 예배 시간에 까지 졸까?’ 또 다른 반응은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졸 수가 있을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해 주는 목사님 좋다. 내가 흠이 많아서 인 것 같다.

## 하나님의 은혜

## 원손이 모르게 >>>

<<2 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스키장에 간 까닭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이번엔 볼 수 있으려나 하고 기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양상한 나무가지에 밤새도록 쌓여가던 눈이 날이 밝아 오자 하얀 꽃이 되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벚꽃처럼 가지에 소복이 피어있는 배꽃처럼 어찌다 누군가가 그 곁을 지나가면 흠칫 놀라 후드득 떨어지기도 합니다.

종일 그렇게 눈부시게 피어 있던 하얀 눈도 때가 되니 녹기 시작합니다. 꽃잎이 지듯이 똑똑 떨어집니다.

밤이 되어 주위가 추워지면 미처 떨어지지 못한 눈꽃들이 아주 작은 얼음 방울이 되어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문 별도 페이지] -유인영기자-

## 비지 찌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사모님들이 만들어 오신 식사를 함께한다. 맛난 음식, 정겨운 대화. 정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누는 맛난 음식과 대화는 더 없이 좋다.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들이 알면 우리 교회 터진다. 그 전에 오순도순 다감다정 마음껏 즐겨야지. 근데 하나님께 좀 혼날 것 같다. 이렇게 좋은 걸 나누어야지 너희들만...

오늘은 비지 찌게. 맛이 환상이다. 먹고 남았다. 너무 맛있어 누구나 가져가고픈 음식이 나게 되어있다.

최은숙집사님이 챙겨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다. 이번 한번 만이 아니다. 여태까지 음식 남으면 자기가 챙겨가는 것 한번도 보지 못했다. 무조건 챙겨서 남에게 준다.

뿐만 아니다. 던킨 도너츠 들려서 따뜻한 핫초코 살 때도 항상 먼저 계산대에 서 버린다. 그 고집 누구도 못말린다.

성경말씀 그른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남들에게 챙겨 주니 이런 복 저런 복 혼자 다 받으시는 것 같다.



# 선교 소식: 종이로 은혜를...

홍성에 선교사 (브라질)

아마존 인근의 인디오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 어린이들은 청소년 시절없이 12 살정도에 결혼하여 정체성의 혼란속에 부부로 살아간다. 그들에게 존재감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목상하던중 창세기까지 올라가 천지창조를 종이로 만들기로 했다. 천지창조를 2 년간 종이접기를 구상했다. 한작품당 6 개의 액자가 필요하다. 액자를 달라고 종이한장을 올려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종리를 접은 액자가 만들었다. 문제가 있을때 마다 없드려 기도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 풍토병에 걸렸지만 작품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양면 색종이가 필요했다. 기도한 다음날 남편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했던 색상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준비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품은 완성되었다. 좋은 성경교육교재였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머무지 않고 전 브라질 어린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인디오 어린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느날 브라질 전도협회 회장이 천지창조를 가르켜 달라고 했다. 준비한 것을 책으로 만드려고 하니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눈치만 보던 중, 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교수들의 데모로 수업이 중단되었다. 책이 완성되자 데모도 끝났다. 책자를 통해 전 브라질 어린이를 만나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실것이다. 한장의 종이를 가슴에 품게하는 주님의 소원을 봅니다. 저는 주님만 바로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넬트 발체)  
(오타가 보이지만 그것 마저도 소중한 그대로 올립니다. 편집자 주)



##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신교지 한글데색을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계에게 -2- -이유진기자-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 타인과의 분쟁, 국가간 전쟁의 원인은 이기심, 즉 죄에 기인한다.

죄의 시작은 미미한 것 같으나, 그 폐해는 크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불사르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잠시 바닷가의 상괘함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 내내 2020 년 새해에는 죄의 씨앗인 이기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림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선교는 영적인 면과 아울러 한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 차례다. 더 넓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더 나은 국가들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 이달의 선교 기도>>>

적응,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몸과 마음에 맞는 땅을 등지고 바다를 건너 등지를 튼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 겠어요. 미국의 어느 남성이 선교를 갔답니다. 그런데 현지 적응이 도저히 되지를 알아서 미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현지에서 힘든 적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알아 그들을 돕기 위해 주스 회사를 차려 엄청난 부자가 되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생소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것처럼 힘든 현지 적응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에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더 가까이 >>>

-강수잔기자-



“저 엄청 부자예요.”  
새로 목장에 오신 박집사님이 돈자랑을 하신다. 원돈이 그리 많으실까? 우리는 생필품 하나 살래도 세일 품목만 두리번 거리는데.  
“저 사람들한테 엄청 사기 당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가져간 돈이 생각나서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부터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돈 모두 하늘에 쌓였어요.”  
히야, 그런 부자도 있었구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딸하고 나누는 대화는 그냥 시다. 뭐 딱히 특별한 것은 없다. 그저 그렇고 그런 대화들이다. 그런데도 그냥 좋다.

가족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 시도하려는데 시간대가 다른 서로의 직장 생활, 그리고 분주한 삶이 절대적 방해꾼들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다.

## 편집 후에

-“갖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 주기 위해 조각을 합니다.”  
로맹의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참 신기하게 지으셨다. 특히 각 개인마다 하나씩 주신 특별한 재능은 놀라기 그지 없다. 그런데 그 재능들이 갖혀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타, 전화기 수리, 글쓰기 등을 지도하면서 놀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몇 시간, 아니면 몇 달 후면 사람들이 달라져 있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줌과 아울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재능들을 발견해 키워주면 참 좋겠다. 그것들이 교회의 일상이 될 때 믿음과 재능,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텐데.

-행함을 위한 기도 제목  
행함 잡지사 설립  
저를 포함해 함께 일하시는 편집인, 기자님들 모두  
정직원이 되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삶 공부에 정착되는 2020 년  
2020 년도에는 교회적으로 2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삶공부가 우리 은혜공동체 교회에 정착이 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는 목장의 분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어권 삶공부를 마치고 간증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에서는 성경공부라고 하지 않고 삶공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삶공부를 제대로 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일반교회에서 했던 성경공부는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다가 보니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속에서 어떤 변화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머리는 커져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가분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삶공부는 물론 지적인 부분도 다루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삶공부 속에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 다 배어져 있네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까지 성도들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삶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삶공부 하나하나에 다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성장해 갑니다. 2020 년도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그러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삶공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합니다.

-안형준목사-

## 은혜공동체교회

별불일은 없지만 해 볼 일은 많은 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강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후원  
김복성  
임재철

[www.samguitar.net](http://www.samguitar.net)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이 사이트로 가세요. 가시면 아마존 광고가 있어요. 아마존 광고에 들어가셔서 물건 구입해 주시면 수익금이 행함으로 들어 옵니다.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